



성창기업지주(주)

000180 | KOSPI | 서비스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17 |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 (다대동) 본사 강당

Executive Summary

▶ 성창기업지주 이사회는 금번 제8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다루고자 의결하였다. 그리고 주주 제안에 따라 현금 배당의 건과 감사 선임의 건이 추가로 상정되어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근감사를 신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관에서는 감사를 2명까지 선임할 수 있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를 1명으로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만약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될 경우 주주 제안에 의한 감사 신규 선임의 건을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금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 역시 개정 상법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하고 이를 주주총회 보고 사항으로 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창기업지주 경영진들이 보다 귀 기울이기를 바라며, 성창기업지주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8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3-1	사내이사 조재만 신규선임의 건	찬성	찬성
3-2	사내이사 김철산 신규선임의 건	찬성	찬성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6호	현금 배당의 건	반대	찬성
제7호	감사 선임의 건	반대	찬성
7-1	상근감사 신규선임의 건	반대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84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 목적 추가, 감사 인원 축소 (1명~2명 → 1명) 등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선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 이사	조재민	58.02.01	3	신규선임	- 2009.01~현재 성창기업지주(주) 재무본부장 역임 - 2012.10~현재 성창보드(주) 대표이사	성창기업지주(주) 재무본부장	경남상업고등학교
	김철산	61.01.10			- 2009.09~2010.12 에프씨정밀 연구소장 - 2011.02~2012.09 광원목재 상무이사 - 2012.10~현재 성창보드(주) 생산본부장	보드 생산본부 총괄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 학사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20억원	20억원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억원	1억원

▶ 제6호 의안 : 현금 배당의 건 [주주제안]

- 1주당 1,500원 현금 배당

▶ 제7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상근 감사	지성래	74.08.26	3	신규선임	- 법무법인 목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무	변호사 지성래 법률사무소 근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수료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총 자산은 전년 대비 큰 변동없이 약 875억원 수준, 부채는 약 13억원 감소한 10억원 수준이며 자본 총계는 약 12억원 증가한 865억원 달성
- 지주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용역 수익 등에 따라 영업수익은 약 19억원 감소한 79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13억원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12억원 달성, 영업수익 감소와 전년도 기타수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35억원 감소
- 이사회의 배당 계획은 없으나 주주제안에 따라 주당 1,500원의 배당 안건 상정
-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7조3항4호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 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함

Discussion

Analysis

▶ 제8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8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주주제안에 따라 현금 배당의 건이 별도로 상정된 만큼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대해 주주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을 반영해 재무제표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주주총회에서는 실제로 이사회가 재무제표에 대해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한 만큼 금번 주주총회에서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다뤄지지 않고 보고로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법 제 449조의2 및 정관 제47조3항4에 의거 주주제안 의안인 제6호 의안 현금배당의 건이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회의목적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에서 자동 폐기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주주간에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정관 변경의 주된 요지는 감사 정원 축소에 있으며, 주주 제안으로 신규 감사 선임의 안건이 상정된 만큼 정관 변경의 건은 사실상 주주들의 신규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기존 감사인 윤효선 감사는 감사 선임 이전에 장기간 성장기업지주 및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바 있어 감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움
- 감사가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인 점을 고려해볼 때,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의 후퇴를 의미하므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대 의견 제안

Discussion

Proposal

▶ 정관 변경의 세부 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생 락 (신 설)</p> <p>(신 설)</p>	<p>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현행과 동일 3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원료, 부품, 소재, 기기의 제조, 설치, 판매, 보관 및 수출입 33. 목재 펄릿 등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유통 및 수출입</p>	<p>-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등을 위한 목적 신설 (32, 33번 항목)</p>
<p>제 27 조 (감 사)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p>	<p>제 27 조 (감 사)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감사는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p>	<p>- 감사 인원 변경</p>
<p>부 칙 제 4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 4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 시행일 변경</p>

사외이사로서 가치 충돌 우려

▶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제안 무력화 시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의 핵심은 감사 정원 변경(축소)에 있다. 기존에 1명 이상 2명 이내인 감사 정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성장기업지주는 상근 감사 1명을 두고 있는데(윤효선 감사) 해당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15년 3월이다.

성장기업지주 일부 주주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신규 감사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변경 전 정관에 따르면 추가 감사 선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는 정관 조항에 따라 최대주주에 비해 소액주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성장기업지주의 최대주주는 정해린 등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율은 29.74%이다.

정당한 주주의 제안에 대해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감사 선임 시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의 경우 감사 선임과 같은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먼저 다뤄지는 만큼 정관이 변경되어 감사 정원이 1명으로 축소될 경우 주주제안을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신규 감사 안건에 대해 다뤄보지도 못하게 되며, 사실상 소액주주의 감사 선임권을 제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 감사 제도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감사 제도는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의 정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부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윤효선 감사의 감사로서 독립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윤효선 감사의 재직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윤효선 감사는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효선 감사는 2012년 감사로 신규 선임되기 이전부터 성장기업지주 및 계열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과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기업의 상무이사 출신인 윤효선 감사는 2003년 12월 윤재복 상근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그리고 뒤로는 성장기업지주에서는 2012년 감사로 등장하기 전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2008년 성장기업이 성장기업지주와 성장기업, 성장보드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비상장 성장기업과 성장보드의 감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즉, 현재 성장기업지주의 감사를 맡고 있는 윤효선 감사는 상당히 장기간 성장기업지주 및 관련 계열사에서 재직하였기 때문에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윤효선 감사는 성장기업지주 뿐만 아니라 성장기업, 성장보드, 그리고 지씨테크 등 계열사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성장기업지주는 성장기업과 성장보드, 지씨테크, 그리고 리우크리에이티브 등 4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윤효선 감사는 리우크리에이티브를 제외하고 성장기업지주를 포함해 4개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감사직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윤효선 감사가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편법적 부와 자원 분배에 대한 논란

공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장기업지주의 자회사인 성장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광개발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업은 성장기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해린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광개발의 주식 25,500주(19.61%)를 주당 32만원에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일가가 약 8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성장기업지주는 2002년 1월 이사회 결의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연오, 정연교, 정연승 등에게 일광개발 지분 18,000주를 주당 2,714원에 매도하며 지분 60%를 전량 정리했다. 총 매각 대금은 약 5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6월 성장기업지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대 토지를 약 203억원에 일광개발에 매각했다. 거래의 목적은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해당 매매는 당시 부동산 혈값 매각 논란에 휩싸이며 주주들의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그리고 당시 일부 주주들은 부동산 매각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정해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했다.

그 후 일광개발은 성장기업지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골프장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2010년 말 총 자산은 약 1,700억원 수준이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성장기업지주의 분할 자회사인 성장기업이 다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광개발의 지분 일부를 10여년 전 주당 매각 가격의 약 120배 수준으로 다시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일광개발은 총자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총 부채가 1,890억원 수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자본금은 13억원에 불과하지만 누적 결손금은 자그마치 207억원에 달한다. 또한 매출은 약 138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순이익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장기업 경영진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일광개발을 주당 32만원에 다시 취득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주주들은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2년 일광개발의 지분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당시에, 그리고 일광개발의 지분을 다시 매입한 지금 시점에도 성장기업지주 및 성장기업의 감사는 다른이름의 윤효선 감사였다. 소액주주들이 신규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주주들이 성장기업지주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감사 선임을 바라는 주주들의 요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당연한 주주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관 변경이라는 꼼수로 주주들의 신규 감사 선임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의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조재민 사내이사 후보자는 장기간 성장기업지주에서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므로 관련분야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안
- 김철산 사내이사 후보자는 관련 학과 전공자이면서 보드 등 목재관련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업무 전문가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 이사	조재민	58.02.01	3	신규선임	- 2009.01~현재 성장기업지주(주) 재무본부장 역임 - 2012.10~현재 성장보드(주) 대표이사	성장기업지주(주) 재무본부장	경남상업고등학교
	김철산	61.01.10			- 2009.09~2010.12 에프씨정밀 연구소장 - 2011.02~2012.09 광원목재 상무이사 - 2012.10~현재 성장보드(주) 생산본부장	보드 생산본부 총괄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 학사

업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사내이사

▶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

조재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성장기업지주 공시책임자이면서 재무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 계열회사인 성장보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성장기업지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회계처리 및 자금 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내이사로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철산 사내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산가공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성장기업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성장보드에서 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목재 관련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업무 전문가로 판단된다.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관련 업무 전문가나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들이 등용된다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위해 조재민 사내이사 후보자와 김철산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안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따르면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해 이사 수는 4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보수 한도액은 2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감사보수 한도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1명에 대해 1억원. 2013년 9월말 까지 이사 4인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2.6억원이며 감사 1인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9백만원.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정된 의안이며, 전년도 한도액과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20억원	20억원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억원	1억원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성창기업지주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4 (1)	4 (1)	4 (1)
주총승인금액(천원)	2,000,000	2,000,000	2,0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245,928	262,391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적

성창기업지주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감사의 수	1	1	1
주총승인금액(천원)	100,000	100,000	1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21,741	9,231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제6호 현금 배당의 건과 제7호 감사 선임의 건은 주주가 제안한 의안으로 주주와 이사회 사이에 기업 경영과 자원 및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다소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제6호/7호 의안은 이사회가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는 의안이므로 실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음
- 현금 배당 요구 및 신규 감사 선임 요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인 만큼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성장기업지주의 경영 상황과 지배구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한 요구로 판단되어 찬성의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현금 배당의 건

- 1주당 1,500원 현금 배당 (액면가 30%)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상근 감사	지성래	74.08.26	3	신규선임	- 법무법인 목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무	변호사 지성래 법률사무소 근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수료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

▶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현금 배당

성창기업지주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으로 1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는 액면가 5,000원의 30% 수준이고, 2014년 3월 10일 종가인 22,650원의 약 6.6% 수준이다. 배당 대상 주식 5,775,160주에 대해 주당 1,500원을 배당할 경우 총 배당 금액은 약 86.6억원 수준이다.

201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성창기업지주는 약 79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12억원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12억원에 배당 86억원은 다소 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창기업지주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특별히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 215억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03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의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224,840주(약 60억원)를 소각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음을 감안해 볼 때 1,500원의 현금 배당 요구에 대해 주주 전체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정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사회 결의로 대신하고 주주총회에서 단순 보고로 갈음될 경우 이에 대해 주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들 간에 회사의 자원과 이익 배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감사 선임 필요

앞서 정관 변경의 건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창기업지주의 경영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중립성 등에 대해 주주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효선 감사의 과거 경력과 행적을 검토해 봤을 때, 주주들의 이러한 우려한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 후보자 지성래는 변호사로서 관련 법률 지식을 활용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감사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창기업지주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신규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하지만 정관 변경의 건이 이사회 제안대로 통과될 경우 감사 정원이 축소되어 주주 제안에 따른 신규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 있으며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회사 자원과 이익 배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과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창기업지주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 주주 제안에 따른 신규 감사 선임의 건이 가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